

AUTHOR 강근환

TITLE 종교개혁시대의 영성운동과 기독교 영성운동

IN 제4회 연신원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강의집  
4집 (유니온 학술 자료원, 1989): 355-361.

서 이것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위험한 것이다. 참된 영성과 그릇된 영성을 구별해야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세기를 중심으로 보면,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어긋난 생활을 하더라도 교회가 자기를 영적으로 훈련하는 일은 언제나 남아 있다. 그것은 참된 영성에 근거된 것이다. 복잡한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나 중세교회가 잘못된 신학적, 철학적 영향을 받아 잘못된 방향으로 영성 훈련을 하려는 경향이 많았지만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생명력이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 보았다. 거기서 다행히 우리에게까지 남아 있는 참다운 영성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달위한 전문교육 : 영성운동과 교회갱신(5)(6)

## 종교개혁시대의 영성운동과 기독교 영성운동

강 근 환

(서울신학대학 교수/교회사)

기독교회는 신-인 공동체인 이중구조로서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초월적 존재인 동시에 하나의 인간집단으로서의 역사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에서 기독교회는 교회의 세속성과 영성의 교차적 기복으로 결집되어 있다 할 것이다. 교회의 속성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회중간의 관계성의 해이에 있다면, 교회의 영성(갱신)은 머리와 지체인 그리스도와 회중간에 있어서의 관계성의 밀착 내지는 원활에 있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세속성과 영성의 귀추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회중간에 있어서의 관계성 여하에 있다. 그런데 그 관계성 여하는 바로 성령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강의에서는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시대에 있어서의 영성운동을 성령과의 관계성의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루터의 입장

중세기의 기독교신학의 특징은 세가지 사각다리에 의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점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스킨라주의적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적 황홀경험과 일반적 도덕주의이다. 합리주의는 이성을 근거로, 또 신비주의는 경험을 근거로, 도덕주의는 행위를 근거로 하여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종교개혁이나 교회사의 전환점은 어거스틴과의 한 수도사인 마틴·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수도원의 어떤 방에서 체험했던 [경험에서 이루어졌다. 루터는 로마제국을 종교로 나가는데 성공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 세계를 변혁할 수 있는 돌파

를 강행했던 것은 오직 한 사람 마틴루터였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Justification by faith)는 그의 체험적 확신에서였다.

루터의 본격적인 종교생활의 출발은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간 때 부터이다.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고 이 구원에 대한 불안이 루터를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에 전력을 다하였던 것이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도덕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실비주의의 세가지 사닥다리를 다 올라가 보았으나 모두 한계에 이르러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토마스(1225~1274)의 합리주의는 옥캄(1300~1350)의 유명론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었고, 마이스터·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 1250~1327)의 실비주의는 개인을 서로 배어놓은 유명론적인 고립화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성서에 근거한 객관적인 계시성을 빠트렸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P. Tillich는 “유명론과 실비주의는 둘다 어느정도까지는 종교개혁을 위한 준비였다고 볼 수 있다”<sup>2)</sup>고 말하였다. 즉 유명론이 신과 인간의 분리에 근거해서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신과의 관계를 맺는 데 비하여 실비주의에 있어서는 신과 인간의 근원적인 일치에 근거하여 신과 인간의 합일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성서적인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에서는 신앙이란 신과의 일치의 경험을 의미한다. 전자가 신앙의 객관적인 측면이라면 후자는 신앙의 주관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가지 관계가 루터에게 있어서는 조화되어 있음을 Paul Althaus는 두가지로 설명한다.<sup>3)</sup>

첫째 성령은 말씀 없이는 말하지 않는다. 우선적인 것이 말씀이다. 말씀이 먼저 나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성령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주의자들과 열광주의자들에 대하여 루터가 역설했던 점이다.

둘째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서는 단지 문자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이와같이 루터의 신학은 성서와 성령, 신앙의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의 역동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1) 폴·틸리히, 「그리스도교 사상사 (송기득역)」, 한국신학연구소, 1983, p.285.

2) 폴·틸리히, Ibid. p.269.

3) Paul Althaus, op. cit. p.35. *The Theor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1966), p.36.

그런가 하면 루터는 또 한편으로 도덕주의의 한계도 느꼈던 것이다. 루터는 수도사로 카톨릭 교회에 있어서 수도원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경험하였다. 인간은 올바른 일을 행할 은총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써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수도사의 특별한 노력도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치 못하다. 그리하여 루터는 마침내 종교와 윤리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우리는 신과 결합되지 않고는 신의 의지를 실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루터에게 있어서의 도덕은 신앙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라고 폴·틸리히는 말한다.<sup>4)</sup>

특히 말하여 루터의 궁극적 목표인 의롭다 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 믿음은 성서의 메시지의 전적 수용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루터의 신관제는 객관적 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매개도 필요로 하지 않은 나-너(I-You)의 인격적 신뢰의 관계가 된 것이다.

### 칼빈의 입장

루터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는 성서에 기록된 객관적 계시성의 주관적 신앙화, 즉 성경을 통한 이신득의(Justification by faith)에 의한 신-인간에 있어서의 인격적 신뢰의 관계성립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는 소홀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1520년에 쓴 「선행론」(On Good Work)의 소책자에서 그는 주장하기를 최고의 선행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기독교 강요의 「성령론」 안에서 신생(Regeneration)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고 있음을 볼 때 그는 의인으로서만 멈추지 않고 이어 성화에도 지향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거하시므로 성령에 의하여 생활하게 된다.

칼빈에게 있어서의 신생은 양면성을 동시에 다 가지게 되는데 한편은 회개로 인한 옛 사람의 수정이고 또 한편은 새로운 삶으로의 참여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인 신생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믿음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게도 한다. 루터

4) P. Tillich, op. cit. p.296.

5) Ibid.

가 믿음에 그쳤는가 하면 칼빈은 생활에로의 성화까지 진전하였음을 본다. 그런데 이 회복은 단시일 내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뉘우침과 참된 경건의 훈련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한다.<sup>6)</sup>

칼빈은 신생에 있어 의인과 함께 곁이어 성화에로의 경건의 재갈을 물린다고 할 것이다. 그점은 성령 앞에서의 자기 부정의 경건이요, 그 자기부정은 신비주의자들의 자기 탈피와는 다른 것으로서 신과 그리스도와 이웃에게 정위된 자기부정인 것이다.<sup>7)</sup>

### 근세정신과 기독교 영성운동

근세에 있어서의 기독교 영성운동(갱신)은 웨슬레를 중심한 영국의 부흥운동이 그 주축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부흥운동(Evangelical Revival Movement)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John W. Bredy는 「England: Before and After Wesley」에서 웨슬레 당시의 영국 사회가 얼마나 어두웠던가를 서술하면서 웨슬레가 개입하던 해인 1738년에 있어서 영국의 도덕과 종교는 일찌기 어느 기독교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히 부패되어 있었다고 말하였다.<sup>1)</sup> 참으로 영국사회는 어두웠고 그 어두움은 날로 더욱 깊어만 갔다. 영국의 사회는 모든 면에 있어서 질병이 만연되어 있었다. 사상은 교상하지 못하였고 스포츠는 잔인하였으며, 공중생활은 부패하였고,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다. 정치인, 법관, 종교인, 민중 할 것 없이 모두 부패하였고 잔인무도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패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무관심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는 종교의 형태요,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다'라는 폴·틸리히의 말을 생각해 본다.<sup>2)</sup> 사실 18세기 초기의 영국의 부패는 종교, 특히나 그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성직자들은 영력이 전혀 고갈된 신앙형태의 천하고 속화된 자들이었다. 그리하여 국교인 영국교회의 교회생활은 단순히 전형적인 모양 뿐이었다. 귀족계급은 종교를 경시하였고, 시민들은 무관심하였으며 서민층은 종교적 영향권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거나 무시되었다.

6) F. Windel, *Calvin*, (London, 1963), p. 243.

7) 빌헬름 니이젠, 「칸트의 신학」(이종성역), 대한기독교서회, 1973, p. 141.

1) John W. Bredy, *England: Before and After Wesley*, London 1938, p. 101.

2) P. Tillich, *Theology of Culture*, p. 42.

이러한 사실은 이신론(Deism)의 영향에 의한 결과이다. 이때야말로 이신론이 모든 분야를 휩쓸었던 시대였다. 그런데 Fichete에 의하면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것이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제거되 버리고 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시의 황금다리를 부숴버리며 생사의 권위를 형편없이 떨어뜨렸다.<sup>3)</sup> 그러므로 18세기의 이신론적 신학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적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신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늘에 숨겨져 희미해져 버린채, 교리나 전통의 전달역할 밖에는 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의 종교에 있어서는 회개의 눈물이 없었고 감격도 없었고 승양의 엄숙한 침묵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식이 흐려진 까닭이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식이 말살되어 있었다. 그런 유익의 성직자에 의하여 되어 갔던 18세기의 이신론적 종교는 불가불 저열한 삶을 걸러낼 수 밖에는 없었다.<sup>4)</sup>

위에서 영국이 18세기에 얼마나 부패하였는가에 대하여 놀라겠지만, 바야흐로 심판이 도래할 시점이었다. 전국은 부패로 만신창이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Evangelical Revival Movement이다.<sup>5)</sup> 이 부흥운동에 대하여 Pool-Connor는 교회론적 입장에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친교(Fellowship)라고 설명한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sup>6)</sup>

영국의 부흥운동의 그 거창한 흐름은 17세기의 청교도라든가, Wales와 북미 식민지역에서의 부흥운동이라든가, 그리고 독일 경건운동으로부터 나타난 여러 종교단체 등의 수개의 종파 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흘러온 것이다. 더우기나 Zinzendorf의 반복된 영국방문은 그 부흥운동의 촉진제가 되었다. 그리고 당초부터 자기 자기 교회내에서 복음주의 정신을 고취시켰던 여러 교회의 협력으로 그 부흥운동은 확장되었다. 특히나 Whitefield와 Charles Wesley와 그리고 더 많은 평신도 설교자들이 부흥운동에 있어서 John Wesley를 도왔다는 것도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특히 같은 시기에 지도자들이 많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뜻있는 일이다. 예를들면 Thomson은 1732년, Whitefield, Rawland, 그리고 Hurriss는 1735년에 그리고 Lenvick는 1737년에 영적인 자성을 하였다.

3) W.H. Fichete, *op. cit.*, pp. 141~142.

4) *Ibid.* p. 145.

5) E.J. Pool-Connor *in England*, p. 149.

6) *Ibid.* p. 139.

1738 년엔 John 과 Charles Wesley 가 결정적인 영적경험을 하였고 1736 년엔 그들의 위대한 전도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여하튼 Whitefield(1714~1770)와 John(1703~1791), 그리고 Charles Wesley(1707~1788)가 이 부흥운동을 발전시킨 세 영도자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영국을 영적인 잠꼬대로부터 깨우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던 일꾼은 John Wesley 였다. 그것은 그의 철저한 영적 체험에서였다는 것은 루터와 같다고 할 것이다.

Whitefield 와 같이 John Wesley 도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 없이 한 동안 종교적인 율법주의 생활을 하였다. Georgia 에 선교사로도 갔었지만 사실 영적인 변화를 아직 갖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웨슬레는 후년에 자기의 초년기의 신앙상태에 대하여 종된 신앙이었지 아틀된 신앙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 하였다. 그는 참으로 바울이 말한 법아래 있는 자였다. 그는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1738 년 5 월 24 일을 기하여 런던의 Aldersgate 가의 한 모임에서 결정적인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사도바울과 Luther 처럼 Wesley 도 구주를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릴 수 있다는 진리를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하여서는 그 자신이 친히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Wesley 신학의 중심은 간단히 말해서 「확신」(assurance)과 「완전」(Perfection)의 두 가지 교리인 것이다.<sup>7)</sup>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성화인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증거하신다.<sup>8)</sup>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 확신이라고 칭하는 복된 체험의 기쁨을 맛보았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백성에게 이 기쁜 확신의 체험을 외쳤다.

믿음의 확신 교리가 의식적인 면에서 내향적인 자신에 관한 사건이라면 사랑의 완전의 교리는 외향적인 이웃에 관련된 사건일 것이고 전자는 후자에 앞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Metanoia 는 사도직(discipleship)을 향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Wesley 가 가르쳐준 「완전」의 교리는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어지고 또한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한 가장 큰 첫째 계명인(마 12:30-31)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교리이다. 완전한 사랑은 개인주의적 완전주의자들이 무시하는 사회봉사를 함축하

7)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First Hupper Torchbook edition published, 1960, p. 722.

8) Wesley's Standard Sermon, Vol. II, p. 450.

고 있다. 그 사랑은 곧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만큼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는 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진실치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완전한 사랑의 교리는 Wesley 가 사람들에게서 좋은 행동적 열매를 맺게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Bready 는 Wesley 신학에 대하여 말하기를 사회적 종교라고 하였다.<sup>9)</sup> 따라서 Evangelical Revival Movement 는 한낱 바보스러운 개인주의적인 것이거나 무시무시한 타제주의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상념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인자 상호간의 친교, 협동, 봉사들이 이 부흥의 중심이었고, 결국 이 부흥을 추진시켜 나갔던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Wesley 는 원래 사회개혁자는 아니었으나 사회에 대하여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 하심에 따라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 살아있을 때 Wesley 신학에 있어서의 「확신」의 교리는 루터와 모라비아파에 가깝다고 하겠으나 「완전」교리는 소극적으로는 자제(Self-Control)적인 의미에서 칼빈 내지는 Puritan-Calvinism 에 가까우면서도<sup>10)</sup>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한 사랑을 지향하고 있음이 칼빈을 극복하려는 점이라 할 것이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 머리되시는 그리스도 아래 살아있을 때 기독교회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사회와 문명은 또한 구원받을 것이다.

## 참 고 도 서

-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1666.  
 John W. Bready, *England: Before and After Wesley*, London, 1938.  
 P. Tillich, *Theology of Culture*,  
 E.J. Pool-Connor, *Euangelism in England*,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First Hupper Torchbook edition Published, 1960.  
 F. Windel, *Calvin*, London, 1963.  
 폴·틸리히, 「그리스도교 사상사」(송기득역), 한국신학연구소, 1983.  
 빌헬름 니이젠, 「칼빈의 신학」(이종성역), 대한기독교서회, 1973.  
 윌리엄 워커, 「세계기독교회사」(강근환의 편역), 대한기독교서회, 1975.

9) J.W. Bredy, op. cit, p. 202.

10) E. Troeltsch, op. cit, p. 722.